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0. 2.14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佛, 사헬지대 테러 격퇴戰으로 테러조직원 30여명 제거
  - 2.9 프랑스군은 西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사헬지대 테러 격퇴전인 '바르칸\*' 작전을 통해 말리·부르키나파소·니제르 접경지대인 립타코-구르마 지역에서 테러조직원 30여명을 제거했다고 발표
    - \* 프랑스는 2013년부터 4천500명의 병력을 투입해 대테러작전 수행중
- NATO, 이라크 주둔 국제연합군을 NATO 산하로 재배치 추진
  - 2.11 FT紙는 NATO가 ISIS 격퇴를 위해 이라크군 훈련을 담당하던 국제연합군을 NATO 산하로 재배치 예정이며, 이는 중동에서 NATO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「트럼프」美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

#### 미주

- 美, 알카에다 예멘지부(AQAP) 지도자 「카심 알리미」 사살 발표
  - 2.6 「트럼프」美 대통령은 예멘에서 대테러작전을 수행해 AQAP의 창설자이자 지도자인 「카심 알리미\*」를 사살했으며, 美 정부는 테러범들을 지속 추적·제거하여 美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
    - \* 90년대부터 알카에다에 합류해 아프간에서 「오사마 빈 라덴」을 위해 일했으며, 現 알카에다의 전략적 지도자인 「아이만 알자와히리」의 잠재적 승계자

#### 아·태평양

- 국회, 체계적 드론 관리를 위한 「항공안전법」 개정안 발의
  - 2.10 국회 윤관석 의원(더불어민주당)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드론의

소유자 및 기체정보 관리, 조종자 비행경력정보 관리 등 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「항공안전법」 개정안을 발의

\*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, 교육기관 지정 등 업무 수행 중

## ○ 日, 도쿄올림픽 대비 「드론 비행금지구역」 확대 추진

- 2.11 일본은 '16년 「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」 제정 후 지난해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 방위관계시설을 포함시킨데 이어, 금년 도쿄 올림픽에 대비하여 문부과학성·국토교통성에서 드론 비행금지 시설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

## 중 동

## ○ 美·탈레반, 평화협상 진전으로 조만간 협상 타결 기대

- 2.11 아프간 현지언론은 「아슈라프 가니」 아프간 대통령이 「폼페 이오」 美 국무장관으로부터 “탈레반과의 평화협상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이뤄졌다”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양측간 협상 타결이 기대된다고 보도

\* '20.1.17 탈레반이 열흘간의 휴전을 제의하면서 협상에 진전

## ○ 印尼, ISIS 합류 자국민 600여명 귀환 거부 결정

- 2.12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ISIS에 합류한 뒤 현재 시리아 난민캠프 등에 있는 자국민 600여명의 귀환을 거부기로 결정하였으며, 다만 10세 미만 아동(약 180명 추정)의 귀환 여부는 별도 검토하겠다고 발표

## 아프리카

## ○ 이집트, '테러자금 제공행위' 범위 확대토록 「테러방지법」 개정

- 2.11 이집트 입법부는 테러범에게 훈련장소·무기·문서 제공은 물론, 테러범의 이동·여행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도 '테러자금 제공 행위'에 포함토록 하는 등 테러자금 제공행위를 폭넓게 규정한 「테러방지법」 개정안을 의결

\* 同 개정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통해 개정·공포 예정

파키스탄內 시아파 이슬람 사원 테러

- '15.2.13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市 하이아타바드 지역에서 이슬람 시아파 사원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, 19명이 사망하고 50여명 부상
- 테러범들은 同 사원에서 금요일예배를 보던 800여명의 시아파 이슬람 교도들을 대상으로 소총과 수류탄 등을 무차별 난사
  - 목격자는 폭탄조끼를 입은 괴한 한 명이 사원 가운데서 자폭하였고, 다른 괴한들이 신자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진술
- 사건 직후, 파키스탄 탈레반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“파키스탄 정부가 조직원을 처형한데 대한 복수”라며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
  - \* '14.12월 파키스탄탈레반(TTP)은 페샤와르의 軍부설 사립학교를 공격해 학생 등 150명을 살해하였으며, 파키스탄 정부는 '15.2월까지 20여명의 테러범을 처형
  - 파키스탄 탈레반은 “피는 계속 피를 부를 것이고 정부는 더 큰 보복을 받을 것”이라며 테러를 계속할 것임을 경고

— < 예멘 알-카에다(Al Qaeda) > —

- (목표) 아라비아반도內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
  - \* 테러단체 지정 : UN('10.1), 미국('10.1), 캐나다('10.12)
- (연계세력 / 활동지역) 알카에다, 알샤바브 / 예멘, 사우디아라비아
- (핵심인물) 카심 알 리미(수괴)
- (최근동향) 「카심 알 리미」는 알카에다 2인자 「함자 빈 리덴」 사망 이후 리더십·인지도에서 차세대 알-카에다를 이끌어 갈 후계인물 중 한명으로 평가 받았으나, '20.1월 미군의 드론공습으로 예멘 남부 알 바이다쉴 야쿨라 지역에서 사망
- (주요테러)
  - '09.3월 예멘 시밤에서 우리나라 관광객 대상 자폭테러(4명 사망·3명부상) 및 사건 수습을 위해 파견된 '정부신속대응팀' 차량에 자폭테러(인명피해 없음)
  - '09.6월 예멘 사다지역에서 의료봉사중이던 독일인 7명, 한국인 1명, 영국인 1명 등 9명을 납치한 후 독일인 2명과 한국인 1명 살해